BDC 도입 소액공모제도 손질

〈기업성장투자기구〉

당국,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개선

의무투자비율 1년 유예기간 적용
순자산 100%까지 차입 허용키로
중소·벤처기업 소액공모한도 확대
공시서식 변경 등 공시 의무 강화

금융당국이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기업성장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ies)의 의무투자비율 준수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모 펀드 형태로 운용되는 BDC는 비상장사 등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로, 설립 후 의무적으로 비상장사, 코넥스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시가총액 2천억원 이하), 중소·벤처기업 조합지분 등 주된 투자대상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런 의무투자비율은 애초 설립 후 바로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돼왔지만 이번 개선안은 설립 후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주된 투자대상 이외에 나머지 40% 가운데 10% 이상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나머지는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BDC의 운영과 관련해서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환매금지형 펀드의 절차를 준용해 증자나 성과보수 수령도 가능하게 했다.

BDC의 상장과 관련해서는 설립 후 90일 이내 상장을 원칙으로 하되 운용사 및 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된 경우에는 3년간 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BDC를 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등이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BDC 운용사는 투자기업에 대한 컨설팅, 경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 겸업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BDC의 최소 설립 규모는 200억원으로 정했으며 운용사가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공개 청약 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투자 유형을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소액 공모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1단계), 100억원(2단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 소액 공모 한도 확대에 따라 공시 서식이 변경되는 등 공시 의무는 다소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BDC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과정에서 시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창립 20주년' 아프로서비스그룹

'OK금융그룹'으로 사명 변경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 약 20개의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는 아프로서비스그룹이 'OK금융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룹명칭을 'OK금융그룹'으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최윤 회장의 그룹 경영 시작 이후 16년간 그룹 및 계열사 주요 명칭으로 활용된 '아프로'를 모두 새로운 브랜드인 'OK'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OK는 지난 2014년 아프로서비스그룹이 예주·예나래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처음 선보인 명칭이다. 한국 기업이라는 의미를 담아 'Original Korean(진정한 한국인)'을 함축해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OK금융그룹 측은 소비자금융, 글로벌 캐피탈사 인수, 해외 시중은행 인수합병 등을 통해 쌓아온 그간의 노력과 결실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발돋움해나가겠다는 구성원 모두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OK금융그룹은 이번 그룹명 변경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최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들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각 부서를 대표하는 임직원으로 꾸려진 창립20주년 기념사업 TFT를 올해 초부터 신설해 운영, OK금융그룹의 새로운 비전 및 조직문화 체계를 수립하고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해나가기 위한 전략을 기획하는 등 신규 기업 브랜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윤 회장은 "지난 20년 간 우리 그룹이 소비자금융을 넘어 저축은행을 통한 제도권 금융 진출, 해외 시중은행 인수합병 등 목표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매년 이뤄왔다"며 "이러한 결실은 3000여명의 임직원분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OK금융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20년, 그 이상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KB국민銀 "全 지점서 손으로 출금 하세요"

손바닥 정맥인증 서비스 확대 시행
확인절차 간소화로 거래 편의성 ⬆

KB국민은행은 손바닥 정맥 인증을 통해 영업점 창구에서 예금을 지급하는 '손으로 출금' 서비스를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손으로 출금 서비스는 한 번의 손바닥 정맥 인증으로 통장, 인감, 비밀번호 없이 예금 지급이 가능한 신개념 창구 출금 서비스다. 특히, 기존 통장 기반의 거래 관행을 탈피하고 신분증-인감 등의 일치 여부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고객의 거래 편의성이 크게 강화됐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 50개 영업점을 시작으로 6개월간 총 284개 영업점에서 손으로 출금 서비스의 파일럿 운영을 했다. 이 기간 동안 약 5만명의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3만2000 여건의 예금지급과 1만9000 여건의 ATM 바이오출금이 처리됐다.

이번 확대 시행 시에는 파일럿 운영에서 확인한 고객들의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해 외화예금, 펀드, 신탁 등 손으로 출금 서비스를 이용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또한, 상품의 출금-송금-해약 업무에 더해 각종 증명서 발급을 포함한 총 46개 제신고 거래 시에도 손바닥 정맥 인증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개편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대표는 "이번 손으로 출금 서비스 확대 시행을 통해 고령층 창구거래 편의성 및 영업점의 업무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 금융강화를 통해 어떤 순간 어느 장소에서나 고객이 원한다면 KB국민은행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기보 '제2회 벤처창업교실' 교육생 모집

11월 1일까지 접수, 심사 후 7일 선발

기술보증기금은 오는 11월 1일까지 '2019년 제2회 벤처창업교실'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벤처창업교실은 기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전액 무료 강좌다.

교육 대상자는 제조·정보통신기술(ICT)·신재생에너지·4차 산업혁명 분야·지식문화산업 등 기술기반 업종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다. 기보는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7일 70명 안팎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2019년 제2회 벤처창업교실은 오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비즈니스 모델 수립 ▲NABC(Need-Approach-Benefit-Competition)를 활용한 고객 개발 ▲기술창업 성공전략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스타트업 기초 세무 등 기술창업과 관련된 실무지식 위주로 구성됐다. 우수 수료자에게는 무료 맞춤형 창업 컨설팅도 제공된다.

기보는 지난 2001년부터 벤처창업교실을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약 2800명의 수료생 배출하고, 2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신한금융, 그룹사 모든 대출상품 한곳서 비교 조회

모바일 대출 플랫폼 새 단장
'스마트대출마당' 리뉴얼 오픈

신한금융그룹은 7일 금융권 최초로 그룹 중금리 신용대출 플랫폼인 '스마트대출마당'을 리뉴얼 오픈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7월 출시한 스마트대출마당을 통해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생명·신한저축은행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한도와 금리 조회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또 각 그룹사의 대출 상품 한도와 금리 등을 조합해 고객별로 최적화된 한도 및 금리로 구성된 상품 패키지를 제안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스마트대출마당은 서비스 출시 후 현재까지 약 10만건의 신청건수와 314억원의 대출 실행을 기록했다. 또한 고객이 은행, 카드, 생명, 저축은행의 금리와 한도를 한번에 보고 신청함으로써 대출 실행 평균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모바일 대출 플랫폼 '스마트 대출마당'.

신한금융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고객 관점에서 편의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존 대출 실행 시 각 그룹사의 앱을 필수로 설치하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스마트대출마당에서 바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리고 기존에 고객이 사용하던 그룹사 앱의 공인인증서를 타 그룹사 대출 실행 시 추가로 등록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기존 등록했던 그룹사 앱의 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기존 거래중인 그룹사의 고객정보를 활용해 대출 신청 및 실행 시 입력하는 정보를 최소화 해 고객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 오픈은 고객관점의 편의성 개선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편리한 신한금융 대표 원스톱 금융 플랫폼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삼성화재 다이렉트 반려묘보험 '애니펫' 출시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반려묘보험 '애니펫'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반려묘의 입·통원의료비, 수술비, 사망위로금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순수보장성 일반보험 상품으로 보험기간은 1년이다.

애니펫은 고객이 자유롭게 보장과 가입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 구성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입·통원의료비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를 보상하고, 입원과 통원 각각 연간 20회 한도로 보장된다.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의 50%를 보상하는 실속형(1일 10만원 한도)과 70%를 보상하는 안심형(1일 15만원 한도) 중 선택할 수 있다.

수술비는 연간 2회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속형(회당 100만원 한도)과 안심형(회당 150만원 한도) 중 선택할 수 있다.

애니펫 가입은 생후 60일부터 만 8세까지의 반려묘가 가입할 수 있다. 만기 재가입을 통해 최대 만 20세까지 보장받는다.

월 보험료는 보통 2만~4만원대 수준이다. 보상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설정, 특약 가입 등 소비자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김희주 기자 hj89@